

2023학년도 제1차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

- ◎ 회의일시 2023년 1월 3일(화) 14:00~16:00
- ◎ 회의장소 본관 2층 회의실
- ◎ 참석위원 김길선(위원장, 기획처장)
 이강오(학생문화처장)
 이재승(기획예산팀장)
 정희진(학교법인 차장)
 심동주(학부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장)
 박철훈(대학원총학생회장)
 박주영(학부총학생회 비대위부위원장)
 임원현(유시스파트너스 대표이사)
- ◎ 불참위원 민정우(주간MBA원우회장)
- ◎ 배석 이성희(기획예산팀 차장)
 오서준(간사, 기획예산팀 과장)

[안전 1] 신규학과(전공) 등록금 책정

1. 안전 내용

1) 학부 신규학과

학과	계열	등록금 책정	비고
인공지능학과	공학	학부 공학계열과 동일	4,713,000원
시스템반도체공학과 (계약학과)	공학	학부 공학계열과 동일	

* 학기당 기준

2) 대학원 신규전공(EIC전공)

전공	석사 등록금	박사 등록금	비고
서비스매니지먼트	7,500,000원	10,000,000원	경영학과
공공커뮤니케이션 &공공외교	일반대학원 인문사회계열 확정수업료의 110%		신문방송학과
상담심리	6,190,000원		심리학과

* 학기당 기준

2. 회의 내용

1) 학부 신규학과 등록금 관련

① 시스템반도체공학과(계약학과) 등록금을 학부 공학계열과 동일하게 설정하는 이유

교직원위원B	공학계열과 동일하게 받아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르게 책정할 수도 있는 것인지 문의함
외부전문가위원	계약학과와 경우 투입되는 자원이나 비용이 더 많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등록금을 더 높이면 어떤지 추가 문의함
교직원위원C	계약학과 세팅 당시 타대학 사례들도 연구하고 참고했는데 대부분 공학계열과 동일한 등록금을 받고 있음. 저학년 때에는 계약한 기업에서 등록금을 부담하지만 고학년 때 만약 입사를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되면 등록금 부담도 학생이 하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도 고려해서 결정한 것임을 답변함

2) 대학원 신규전공 등록금 관련

① EIC전공 관련

교직원위원A	EIC전공 같은 경우 학문 후속 세대의 관점과는 별개로, 최근 트렌디한 학문적인 요구와 평생 교육의 관점에서 실용적인 주제를 배우고 싶어 하는 수요가 더 많아지고 있다는 판단하에 새롭게 개설하는 전공임. 실무 전문가들을 위해서 실무 중심으로 커리큘럼을 운영하는 전공이어서 투입되는 인적 자원과 비용이 더 많으며,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전공에 자율성을 부여하여 해당 전공에서 책정하여 제시된 등록금임. 이에 일반 대학원과는 다른 등록금(안)을 책정했음을 설명함
--------	--

3. 의결 사항

- 안건에 대해 출석위원 8명 중 8명 찬성으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

[안건 2] 입학금 폐지에 따른 후속조치

1. 안건 내용

1) 학부 입학금 폐지 대학의 입학금 실비용분에 대한 등록금 산입기준

산입기준(교육부)	본교 방안
입학금 산입금액을 전체학년 또는 일부학년의 등록금에 산입할지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논의	입학금 산입금액을 일부학년 (입학 후 첫 학기) 등록금에 산입

* 해당 산입금액은 국가장학금 II유형으로 지원될 예정이므로 학생 실납부 등록금은 증가하지 않음(교육부 안내사항)

2. 회의 내용

1) 학부 입학금 관련

① 등록금에 산입된 입학금 실비용 청구에 관한 사항

외부전문가위원	국가장학금 II유형으로 지원되는 금액을 모든 학생이 다 받는 것인지 문의함
학생위원A	타 대학의 경우 학교에서 한국장학재단에 일괄적으로 신청한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본교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추가 문의함
교직원위원C	한국장학재단의 설명회에서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신청하는 것으로 안내되었음. 학교가 선택할 수 있다면 학생들의 불편함을 덜어주기 위해 학교에서 일괄 신청 방식으로 할 예정임. 그러나 결국 한국장학재단의 방침에 따르게 될 수밖에 없음을 답변함

② 산입금액으로 인하여 상이한 등록금 안내 관련

학생위원A	입학금 실비용분 산입금액으로 인해서 상이한 등록금에 대해 학생들에게 어떻게 설명될 예정인지 문의함
교직원위원C	입학금 실비용분으로 안내될 예정임을 답변함

2) 대학원 입학금 관련

① 대학원 입학금에 대한 적절성

학생위원A	학부 입학금 실비용분으로 인정받은 금액과 대학원 입학금을 비교해보면 대학원 입학금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생각됨. 대학
-------	---

교직원위원C	원 입학금 산정 근거에 대해서도 대부분의 대학들이 적절한 답변을 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함. 이에 대학원 입학금 감액에 대하여 건의함 2017년 학부 입학금 폐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이와 관련된 소송도 진행되었지만, 당시 입학금 관련 법적인 판단은 유보되었음. 이에 교육부는 입학금을 수업료에 산입하는 방식으로 논의를 마무리하였음. 이러한 부분을 고려해보면 대학원과 학부 입학금을 동일 선상에서 비교하기엔 어려운 측면이 있음을 설명함
교직원위원B	대학원 입학금 문제도 자주 나오는 이슈이니 교내 의견 수렴도 하고 이와 관련한 설명도 필요할 것임을 건의함

3. 의결 사항

- 안건에 대해 출석위원 8명 중 8명 찬성으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

[안건 3] 2023학년도 등록금 책정(안)

1. 안건 내용

1) 학부 수업료(등록금)

입학금	[안건 2]에 따라 입학 후 첫 학기 등록금에 입학금 실비용분 산입
수업료	정원외 외국인: 4% 인상 그 외: 동결

2) 대학원 입학금/수업료(등록금)

입학금	동결
수업료	일반대학원 인문사회계열: 4% 인상 자연과학계열: 2% 인상 공학계열: 동결
	전문대학원 신학, 법학, 기술경영: 4% 인상 국제: 2% 인상 경영(AI-MBA): 100만원 인상 경영(AI-MBA 외), 메타버스: 동결
특수대학원	공공정책, 교육, 경제, 미디어커뮤니케이션, 정보통신: 4% 인상

2. 회의 내용

1) 등록금 인상 관련

① 국가장학금 II유형 포기를 고려한 등록금 인상 필요성

교직원위원B	등록금을 올려서 그 인상분을 모두 장학금으로 주더라도 등록금을 인상하는게 맞지 않을지, 인상을 하는 데에 어떠한 제약이 있는지 문의함.
--------	---

	아울러 이렇게 수입이 제한되어 있어 건물 감가상각충당기금도 제대로 적립하지 못하는 현 상황을 그냥 방치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견을 제시함
교직원위원A	건물은 해가 지나면서 낡아지므로 이에 대한 개보수/재건축 비용 등을 적절히 적립해 나가야 하는데, 대학의 열악한 재정상황으로 인하여 감가상각충당기금을 제대로 적립하지 못한지도 꽤 오래되었음. 학부 등록금이 수년간 동결되어 온 것이 원인이며, 사실상 등록금을 이렇게 통제할 거면 지원금을 충분히 주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있음. 자료에도 나와있지만 학원비보다도 저렴한 것이 현재의 대학 등록금임을 설명함
외부전문가위원	국가장학금 II유형 포기하고 학부 등록금을 물가상승률만큼 인상해서, 인상분은 장학금으로 다 지급하더라도 등록금을 현실화시켜 갈 필요성이 있음. 물가는 기존 대비 2배 이상 오르는 상황에서 나중에 등록금을 현실화하려면 한 번에 100% 이상 인상을 해야 하는데, 그게 오히려 더 큰 문제임. 학교의 교육서비스 질을 높이고 훌륭한 인재들을 키워낼 수 있도록 혁신적인 방안이 필요함. 등록금 동결 정책에 순응하기만 하면 대학 경쟁률도 악화되고 학교가 도태되는 길밖에 없음을 주장함
교직원위원A	현실적으로 사립대 홀로 정책과 상반된 일을 추진하기는 부담스러운 면이 있음. 해당 내용은 총장협의회나 기획처장협의회에서도 꾸준히 의견 제시되는 내용임. 현실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재정 건전화화를 위해 노력중이며, 대학원 EIC전공이나 로올라국제대학 신설도 이러한 노력의 일환임을 설명함
외부전문가위원	등록금 관련해서 더 적극적인 사고의 전환이 필요함. 서강대 명성에 맞는 등록금을 책정하고 그 수입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도 100% 장학금을 지원해줘서, 서강대라는 명성에 맞는 학업 능력이 뛰어난 학생들을 교육시키는 방식으로 바꿀 수 있어야 함을 건의함

② 정원의 외국인 등록금 인상 관련

교직원위원B	외국인 등록금 인상 관련해서 해당 학생들에게도 설명이 있으면 좋겠음. 외국인 학생들의 만족도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건의함
교직원위원A	국내 사립대학들의 경우 대부분 국민 세금으로 지원되는 보조금을 받고 있음. 국내 학생들의 학부모들이 내는 세금이며,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면 내국인과 외국인 등록금이 차이가 나는 것은 당연한 결과임. 해외대학의 경우도 그렇고 미국대학의 경우도 해당 주, 타 주, 외국인별로 등록금이 상이함. 다만 현재 외국인 학생 수업 관련하여 대학 내에 개선할 부분들도 있으며, 본교가 추진하고 있는 로올라국제대학도 외국인 학생들과 그 학부모들까지 만족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방안 중에 하나임을 설명함
외부전문가위원	외국인 학생들도 정말 우수한 인재들을 유치할 필요가 있음. 우수한 인재들을 기업과 스폰서십으로 연계해서 입학시키는 방안 등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함

③ 등록금 인상 관련 논의

학생위원A	대학원 등록금 같은 경우 타 대학 대비 저렴한 것은 사실임. 그러나 학생들이 가지는 불만과 의문은 등록금을 제외한 부분에서 학교가 어떤 재정적 선순환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가임. 등록금 인상에 맞춰서 법인 전입금도 높이고 수익사업도 활발히 하는 등 등록금 이외의 학교의 노력에 대해 문의함. 등록금만 인상하여 재정확보를 하겠다는 방안으로는 학생들이 받아들일 수 없음을 설명함
교직원위원A	학교에서도 현실적으로 인상에 제약이 있는 등록금 외에 다른 방안을 강구하고 있음. 글로벌MBA나 최고경영자과정, 메타버스전문대학원, 한국어교육원 등 수요가 풍부한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서 수익을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학교 재단의 경우 그 특성상 전입금을 향상시키는 데에 한계점이 있기때문에 대학원이나 부속교육기관 차원에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음을 같이 고려해줄 것을 답변함
교직원위원C	긍정적인 부분은 한국어교육원의 수입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고 이 부분을 학교 차원에서 더 확대하고자 함. 또한 산학협력단의 경우도 지난 몇 년간의 침체를 벗어나 정상화되고 있는 관계로 비등록금 수입이 상당 부분 개선될 것으로 예상됨을 설명함
학생위원A	등록금 인상을 하더라도 인상에 대한 혜택이 학생들에게 돌아가는 것인지 문의함. 현재 난방 관련한 문제가 상당히 큼. 연구실의 경우 너무 추워서 키보드 타자도 못 칠 정도인데, 이러한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는지 문의함
교직원위원C	현재의 등록금 인상안은 물가상승률보다도 작은 수준의 인상안임. 이는 이 정도의 인상도 불가할 경우 환경이 더 열악해질 수밖에 없는 것을 의미함. 예산은 동결인 상황에서 에너지비용, 최저임금 등이 상승하면 그만큼 비용절감을 할 수밖에 없음을 설명함. 추가로 교수, 직원의 인건비도 수년간 동결되어 온 관계로 한계에 직면해 있음. 교수 총원은 물론 우수 교수나 직원을 임용(채용)할 수 없는 수준임을 답변함
학생위원A	만약 등록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교육·연구 환경은 기존과 동일하다면 학생들이 납득하기는 어려움.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을 주장함
교직원위원A	10여 년간 등록금은 동결되었지만 최저임금이나 에너지비용 등 물가는 현저하게 많이 상승한 관계로, 이번 인상안은 증가한 비용을 최소한으로 따라가는 정도의 인상임. 그로 인해 학생들 입장에서는 피부에 와닿게 체감이 안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이해함. 난방 같은 경우 학교에서도 9억 이상 추경을 진행하여 예산을 더 편성하였으나, 워낙 에너지비용이 가파르게 상승한 문제도 있음을 답변함
교직원위원B	계열별 차등 인상안보다 올해 일괄 4% 인상해서 난방 문제 등을 해결하는 것도 방안이 될 것임을 건의함
교직원위원C	그 방안도 방법이 될 수 있음. 2023학년도 시설팀 예산을 10억 이상 더 투입하여 편성하고 있지만,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용역비 인상, 에너지 단가 인상 등으로 예산 증액의 효과가 크게 나타나지 못할 것으로 예측됨을 설명함
학생위원A	학생 대표의 입장에서, 전체 학생들의 의견과 처우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음. 만약 일괄 4% 인상을 한다고 하면 그 혜택이 에너지 비용 등 학생들에게 배정될 수 있는 것인지 문의함
교직원위원C	그렇게 배정이 될 것이며, 추후 등록금심의위원회 예산 심의때 학생위원분들이 확인 가능한 사항임을 답변함
학생위원B	학생들 입장에서는 등록금은 선행으로 인상하게 되고 혜택은 후행으로 받게 되는 것이기에, 제대로 이행이 되지 않으면 등록금 인상에 대해 이해할 수 없음을 설명함

④ 대학원 계열별 차등 인상 관련

학생위원A	대학원 계열별 4% 인상, 2% 인상, 동결 등 차등 적용의 이유와 후년에도 차등 적용될 예정인지 문의함
교직원위원C	학교측이 생각하는 계열별 적정비율을 복원하는 과정이며, 올해를 마지막으로 차등 적용하고 내년부터는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음을 답변함

2) 등록금 형평성 문제

① 복수전공에 따른 계열별 등록금 형평성 문제

학생위원B	어느 정도 등록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이해는 하는데, 복수전공으로 인한 계열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예를 들어 인문대로 입학해서 공대를 복수 전공하면 인문대생들이 상대적으로 이익을 보는게 아니냐는 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음. 공대 학점당 얼마씩 추가 비용을 받는다든가 하는 개선 방안을 건의함
교직원위원C	그 방안은 등록금 인상률을 측정하는 방식에 의해 학부 등록금 '인상'으로 판명날 소지가 있음. 좋은 방안이지만 현실적인 문제가 있으므로 장기적인 방안을 검토하겠음을 답변함
교직원위원B	이 문제는 공정성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합리적인 방안을 찾을 필요가 있음. 어떻게 보면 원 전공생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기 때문에 개선이 필요함을 건의함
교직원위원A	시대에 따라 인기 있는 제2전공이 변하는데, 그 전공들에 학생들이 몰리기 때문에 원 소속 학생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학교 내에서 자원의 재분배를 하는 등 노력할 필요가 있음을 동감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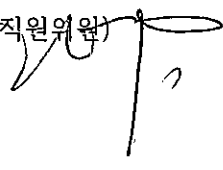
3. 의결 사항

- 안건에 대해 출석위원 8명 중 8명 찬성으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

2023. 1.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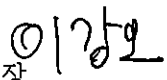
위의 사실을 확인함

위원장 : 김길선 기획처장 (교직원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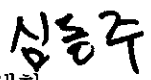
(교직원위원)

이강오
학생문화처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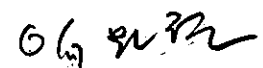
(학생위원)

심동주
학부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장



(외부전문가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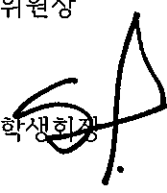
임원현
유시스파트너스 대표이사



이재승
기획예산팀장



박철훈
대학원총학생회장



정희진
학교법인 차장



박주영
학부총학생회
비상대책부위원장

